

BEFORE YOU READ

1. What is happening in the picture?

어느 외국 도시의 인적이 많은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종이컵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고 그냥 제 갈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도와줘도 이 사람이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어 회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 What reasons do you think people would give for not helping the man on the street?

어느 도시인지는 몰라도 구걸을 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거나 저 남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많이 있어 별로 동정심이 유발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도 구걸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막상 도와주는 분들은 극히 드물게 보인다. 나 또한 별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AFTER YOU READ

DISCUSSION AND WRITING TOPICS

1. Do you think the bystander effect is as likely to take place today considering all our advances in technology? Why or why not?

방관자 효과는 아무리 모든 기술이 발전되어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방관하는 행동은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굳이 내가 안 도와줘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던지, 혹시 내가 상황도 잘 모르는데 도와줬다가 일이 더 커지거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How could we as a society try to reduce the bystander effect? Think of specific examples and give detailed descriptions.

뉴스나 방송매체, 주위의 환경 등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소신 있게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 또는 심리가 앞장 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렸을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형 백화점 앞에 자선단체가 있는데 아이 앞에서 돈을 꺼내서 자선냄비에 넣어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아이와 같이 기부하는 행동을 하고, 기부하는 이유를 아이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그 아이는 타의든 자의든 일단 성취감이라는게 들 것이다.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아이한테 보여 주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